

## 111. 참을성과 순종과 인내의 중요성 & 열매의 익음.

2015.08.1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자신을 저에게 드러내신 이후로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저에게 가져다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하지만 너의 순종이 그렇게 만들었어.

(클레어) 그 순종조차도 주님 덕분이예요.

(예수님) 그래, 그것은 사실이야. 순종 조차도 내 덕분이야. 그리고 클레어, 말로는 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를 절대로 표현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의 고난은 그것을 표현하였어. 나는 너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클레어)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때 저는 주님의 고난이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주님의 인내심은 놀라워요. 주님의 인내와 자비는 절대적으로 놀랍고 제가 말 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커녕 인내심이 있고 자비로운 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그것은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것이고, 너의 일의 일부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연민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어. 오, 그리고 그 이상까지. 너가 마침내 나에게 '예'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겪었던 것들. 너가 그곳에서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너가 죄에서 죄로, 어두운 골목에서 어두운 골목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고통들. 나는 너를 잡아채서 나에게 데려가야 했어.

(클레어) 네,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인내심이 오늘 밤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너희들 모두는 인내심에 대해서 배울 것이 정말 많아. 인내심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배워오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야. 휴거나 너의 회심처럼. 너의 회심은 갑자기 일어났지만, 그때까지 너는 매우 오래 기다렸어.. 12년이었지?

(클레어) 네 그런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 12년은 비록 어둡고 희망이 없었지만 회심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목적을 이루었어. 그것은 너를 단련시키고 세상의 절망과 공허함의 깊이와 세상의 모든 답,

심지어 인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 대한 답을 드러내주었어.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에는 책임을 지는 최종 답은 없어.

그러니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동안 너희들의 인내심은 불속에서 일곱번 단련되어진 금처럼 너희들을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 내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안 너희들의 자선과 기꺼이 기다리는 것은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해. 나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어.

여기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인내심이야. 너희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이룬 후에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야. 잠시동안만 있으면 내가 갈 거야. 나는 지체하지 않을 거야.

내 사랑들아, 나는 지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구에서 선을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는 끝이 날 거야. 모든 희생은 합산되어지고 모든 기록이 마무리되어질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의 보상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너희들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놓고 시간을 낭비하였다면? 그러면 지구에서의 시간동안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 만약 너희들이 자신과 너희들의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매일 고려하고 있어? 너희들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기록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 모든 것들은 위대한 책에 기록되어질 거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성향 조차도 놓치지 않아.

(클레어) 아.. 저의 성향이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견뎌내어 하려는 너희들의 의지에 주목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취향에 따분하고, 생기가 없고, 지루해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크게 교화시킬때 나는 그것을 주목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설때? 오 그래, 나는 그것을 주목해.

너희들이 거친 말을 삼가 하고 너희들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때 이것도 기록되어져.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인내와 사랑의 부족을 회개할때? 그래, 나는 그것 또한 인지하고 기록해.

내가 하루 종일 내 책에서 너희들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페이지에 무엇이 있을지를 고려해라. 그 책을 열어 큰 소리로 읽을때 너희들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나의 신부들아, 삶의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들 자신에게 매를 아끼지 말고 너희들의 불의와 육체를 잣더미로 무너뜨려라. 너희들 자신을 책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거야. 클레어, 나는 너가 한 말을 좋아해.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클레어) 저는 주님께 책망을 받는것 보다 슬취한 불량배에게 맞는 것이 더 나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 장소는 가장 부드러운 곳이에요!

(예수님) 그래. 그것이 요점이야. 그렇지? 너희들이 사는 곳. 너희들은 사랑과 용서로 살고 있어? 아니면 원함과 비통함으로 살고 있어? 너희들은 나쁜 행동을 기꺼이 고치려고 간구하고 있어? 아니면 아무 피해도 없는 척하고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과 태도로 이웃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고려해? 아니면 신경쓰지 않아? 내 사랑들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중요해. 나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용서를 퍼뜨리길 바래.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때 너희들이 화해하기를 바래. 이것들이 나에게 중요하며 나는 이것들을 모두 기록해.

(클레어) 주님, 하지만 저희가 고백하는 죄들은요?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들도 기록하여 보관하시고 있으신가요?

(예수님) 만약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내가 “나는 신실하고 의롭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준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요한일서1장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클레어) 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록은요?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1장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클레어, 나는 너희들의 교화를 위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기록들을 절대로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 지워. 왜 내가 더러운 기저귀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겠어? 응?

(클레어) 좋은 지적이세요.

(예수님) 내 사랑들아,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일으키려는 거야. 너희들은 인내심이 절실히 필요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바심으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것은 너희들을 지치게 만들어. 내가 가는 것에 대한 너희들의 조바심, 너희자신에 대한 너희들의 조급함. 그래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너희들은 모두 조바심의 죄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이웃에게, 너희들 자신에게, 나에게. 조바심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그것은 너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바심으로 인해 남겨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위안, 다른 산만함을 찾고 있어.

호기심과 조바심은 적들의 낚시도구상자에 있는 가장 큰 낚시바늘들 중 하나야. 그것들은 너희들을 단 1도라도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완벽한 미끼야. 그 변화는 너희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너희들의 자신감은 침식되어져. 휴거가 일어날 시간과 공들여 연구하고 추론하여 자신의 주장을 일리있는 말로 만드는 전문가들에 대한 너희들의 호기심을 고려해라.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웅알이야! 그것은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의 완전함과 신비에 다가가지 못해.

그래, 나는 이 계절에 하는 일들을 좋아해. 나는 또한 놀랍게 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신뢰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처리하려고 밀쳐두는 것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사다리의 가로대처럼 단서를 주고 싶지만 합판 상자에 갇히는 것은 싫어해. 최근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그 대신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너희들의 후광은 칙칙한 회색이 아니라 빛나게 되었을 거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나를 위해 너희들이 그들을 찾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쫓는데 끝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글썄, 그것을 기록하고 합산하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아.

(클레어) 주님, 주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예수님)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클레어, 어떤 것들은 정말로 계속 반복되지만 그것을 견뎌야해.

(클레어) 주님, 귀뚜라미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밤에 귀뚜라미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 그들은 나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귀뚜라미들은 온도에 반응하지만 그들의 창조주에게 찬양을 돌려주는 작은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 나는 귀뚜라미들을 사랑해.

귀뚜라미들은 나의 계획 안에서 매우 작지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 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해.

그래 클레어, 나는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너희들 모두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너희들의 튜너가 나의 주파수에 맞춰지도록 기도해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 너희들 모두는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었어. 너희들 각각 모두가. 너희들은 단지 나의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클레어가 일종의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나는 각각 너희 모두에게 찾아갔어. 너희들은 그 생각을 나 라고 인지하지 않은 것뿐이야. 이것이 내가 말하는 튜닝이야.

오, 만약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 모두가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나의 뜻이야. 이것이 나의 온전한 뜻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빨리 받을수록 내 말을 더 빨리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인내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나는 인내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책(성경)에 썼어. 가을과 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농부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은 익게 될 귀중한 수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 너희들도 반드시 인내심을 가져야해. 내가 가는 때가 거의 다 되었으니 용기를 가져라.

지금 이순간에 너희들은 나에게 더 많은 인내심을 요청하기만 하면되. 그러면 나는 그 인내심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래, 수확할 것이 무르익고 있어. 그래, 창고가 채워지고 있으며, 마지막 한 알을 창고로 가져갈때까지 너희들의 기다린다면, 너희들은 체력과 힘으로 큰 보상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좌절과 초조함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한알 한알 수확하는데 너희들의 역할을 하느라 바쁠 거야. 너희들의 역할이 오직 기도와 고통, 희생뿐일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연료가 되고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인내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너희들의 미덕은 간과되거나 보상을 못받게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뿌린대로 내가 너희들의 영광의 몫을 너희들에게 주어 그것이 너희들 안에 거하여 사방이 밝게 빛나게 될 거야. 그래, 너희들은 육체와 영혼에 영광을 얻을 거야.

내 사랑들아,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해. 너희들의 인내심을 길러라. 좌절없이 안식하고 결과없이 기다리는 태도를 길러라.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쌓아놓고 보호하고 있어.